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출제자	출제자 강아연, 이승진, 송현호		
	2017학년도 9월 20일 1교시	반 변	<u> </u> 호:	이름: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선택형은 OMR카드에, 서술형은 서술형 답안지에 작성하세요.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종의 창제 의지가 반영된 한글의 과학성은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①한글을 구성하는 기본 글자의 모양은 그 글자를 발음할 때의 혀나 입의 구조를 나타낸다. 즉, 한글의 기본 글자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①획을 더해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글자로 표기됨을 알 수 있다. 한글은 체계적인 음성 분류에 따라 조직된 문자인 것이다. 하나의 글자는 한 가지소릿값을 지니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또한 <u>@한글</u>의 특징인 '모아쓰기'는 <u>⑤정보</u> 처리의 효율을 높인다. '불'은 세 음소 'ㅂ, ㅜ, ㄹ'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글자로 모아쓰기 때문에 각 <u>ⓒ음소를</u> 낱낱이 분석하지 않아도 음절 단위로 빠르고 정확하게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말은 <u>@문법</u> 요소가보통 한 단어, 한 <u>@글자</u>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만으로 문법 요소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잡히겠다'라는 단어는 '히, 겠, 다'라는 글자를 보고 '피동형, 미래형, 평서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만들어진 원리	자음
1	혀뿌리가 입천장을 막는 모양을 본뜸.	٦
2	혀끝이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뜸.	L
3	이의 모양을 본뜸.	入
4	목구멍의 모양을 본뜸.	П
5	입 모양을 본뜸.	0

- **2.** ①에 해당하는 자음이 들어 있지 <u>않은</u> 것 <u>두 개</u>를 고르면? (2점)
  - ① 사과
- ② 모자
- ③ 운동

- ④ 용무늬
- ⑤ 바다
- 3. 〈보기〉에 해당하는 음운이 순서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3점)

\_ <보기> \_\_

- (1) 혓소리 가획자의 각자 병서에 의한 음운
- (2) 어금닛소리가 들어 있는 합용 병서에 의한 음운
- ① (1)-II (2)-II
- ② (1)-Ⅲ (2)-₹1
- 3 (1)-7x (2)-tt
- ④ (1)- TI (2)-₹X
- (1)-2A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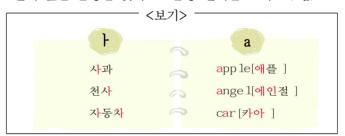
4. ⓐ~ⓒ 중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음이 들어있는 단어끼리 묶인 것은? (2점)

- く보기> -

- \* 기본 글자의 모양을 달리하여 만든 글자이다.
- \* 현대에도 사용되는 자음 중 하나이다.
- ① a, e
- ② b, e
- 3 c, d
- 4 a, b, e
- (5) (b), (d), (e)

## <서술형 1>

윗 글에서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과 관계 깊은 문장을 찾아 그 문장 전체를 쓰시오.(4점)



## 〈서술형 2〉

기본 모음자 세 가지를 쓰고 각각의 모음이 만들어진 원리를 쓰시오. (6점)

- 《조건》가. '~은(는) ~을(를) 의미하고, ~은(는) ~을(를) 의미한다.'의 형식으로 쓸 것.
  - 나. 반드시 한 문장으로 쓸 것.
- **〈배점〉 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각 1점 감점.
  - 나. 맞춤법, 문맥 오류 시 : 각 1점 감점.
- 5. 〈보기〉에 해당하는 모음으로만 짝지어진 단어는? (3점)

— <보기> ・

\* 기본 모음자를 한 번 합하여 만듦.

- ① 엄마-이모-고모
- ② 음악-미술-무용
- ③ 국어-수학-영어
- ④ 농구-축구-야구
- ⑤ 바다-자전거-우주

☞뒷면에 계속

### [6~8, **서술형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②나・랏:말산・미 中毎國・국・에 달・아 文문字・ 중・와・로 서르 ①〈尺 ・디 아・니홀・씨 ・이런 전・추・로 ①어・린 百・박姓・성・이 ⓒ니르・고・ 져・홇・배 이・셔・도 ②只・춤:내 제・匹・들 시・ 러 펴・디 :몯홇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윙・호・야 ②: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 여・듧 字・중・를 밍・フ노・니 :사롬:마・다 :히・뼈 ⑤:수・비 니・겨 ・날 ・로 ・뿌・메 便晒安む・킈 で・고・져 裏 뜻락・미니・라

- "ⓒ**훈민정음**" 언해본-

- **6.** 이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u>두 개</u>고르면? (3점)
  - ① 한자로 우리말을 표현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아.
  - ② 15세기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은 한글이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었어.
  - ③ 한글이 처음 만들어 졌을 때에는 스물여덟 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네.
  - ④ 한글은 백성을 위한 글자였기 때문에 지배층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었을 거야.
  - ⑤ 한글은 쉽게 배울 수 있고 적은 수의 문자로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 7. @부분에 드러난 한글 창제의 정신으로 바른 것은? (2점)
  - ① 자주 정신
- ② 실용 정신
- ③ 애민 정신
- ④ 독립 정신
- ⑤ 창조 정신
- **8.**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어휘를 ①~① 중에서 <u>두 개</u>고르면? (3점)

### 一 <보기> -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기도 하고, 기존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변하기도 한다.

- $\bigcirc$
- 2 L
- (3) (=)

- ④②
- ⑤ 🗆

#### <서술형 3>

밑줄 친 🕞 현대어로 바르게 풀이하시오. (6점)

- 〈조건〉 가. 밑줄 친 부분만 고쳐 쓸 것.
  - **나.** '~이다'로 끝마칠 것.
- **〈배점〉 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각 1점 감점.
  - 나. 맞춤법, 문맥 오류 시 : 각 1점 감점.

#### 〈서술형 4〉

밑줄 친 ⓒ의 의미를 4어절로 쓰시오. (4점)

⟨배점⟩ 맞춤법, 문맥 오류 시 : 각 1점 감점.

[9~10. **서술형**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금 우리가 정확한 통계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①훈민정을 창제 이전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리란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글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한문을 아는 극히 적은수의 특수층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배워야 하는 민중을 위해 이 글자는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집안이 아니고서는 여자들은 한자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예속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여자들 사이에서 더 많이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이 '암글'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한글이 우리나라 여자들의 지위 향상에 크나큰이바지를 한 것입니다.

(나) 그러나 양반들은 한문 배우기와 쓰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므로 15세기부터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글자 아는 사람과 글자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고, 글자 아는 사람은 다시 한자 아는 사람과 한자는모르되 한글은 아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 있었습니다.이것은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데 큰 걸림돌이되었습니다. 민중은 한글로 글자살이를 하는 데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하여 17세기 무렵부터는 대중 소설이발달하여, 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해 나갔던 것입니다. "홍길동전", "춘향전" 등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글 소경과 글자살이의 혼란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방해물임을 깨닫고 한글만으로 된 신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독립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한글은 우리글이니 우리가 한자 대신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민모든 사람이 글자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신문을 한글만으로 적어 내었습니다. 이것은우리나라 신문의 역사에, 우리 글자살이의 역사에 큰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신문"의 이상은 일제의 무력 침략에 부딪혀 계승·발전되지 못했습니다.

(라) 일제의 탄압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 학자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글쓰기를 통일하는 데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조선어학회'에서는 주시경의 학문을 이어받아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어학회에서는 회원들을 총동원하여 전국 각지에 한글 강습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신변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과감히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출제자	출제자 강아연, 이승진, 송현호		
	2017학년도 9월 20일 1교시	반 번호: 이름:			

(마) 광복이 되고 난 1948년에 우리 국회에서는 '한글 전용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세종대왕의 이상과 "독립신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 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합리성과 대중성에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9. 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 (3점)
  - ① 초성의 기본자는 열 개이다.
  - ② 중성의 기본자를 합용하면 거센소리가 된다.
  - ③ 초성과 중성에는 같은 소리를 반복하여 쓸 수 있다.
  - ④ 중성은 우주의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 했다.
  - ⑤ 초성과 중성의 기본자를 만든 기본 원리는 같다고 할 수 있다.
- **10.** (가)~(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한글이 창제된 이후 한글은 여자들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
  - ② (나): 17세기 무렵 한글로 된 대중 소설이 발달하여 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하였다.
  - ③ (다): 19세기 말 한글로 된 '독립신문'이 발간되어 일제의 무력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은 계승발전되었다.
  - ④ (라): 일제강점기에도 애국 학자들이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글쓰기를 통일하는 데 있는 힘을 다했다.
  - ⑤ (마) : 광복 이후 '한글전용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

#### 〈서술형 5〉

(가)~(마) 중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찾아 25자 내외로 쓰시오. (5점)

⟨조건⟩ '~다' 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 쓸 것.⟨배점⟩ 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점 감점.나. 맞춤법, 문맥 오류 시 : 각 1점 감점.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도 젊은 시절에는 과거(科學) 공부조차 하지 않으면서, 너희처럼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기도 했단다. 그러다가 경신년(1560년, 명종 15년) 겨울에 "맹자(孟子)"를들고 관악산에 들어갔다. 몇 달에 걸쳐 스무 번을 읽고나서야 겨우 "맹자"를 통째로 외울 수 있었지. 산에서

내려와 말을 타고 서울로 돌아올 때에는 다른 일은 거들 떠보지도 않고, 오직 "맹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속으로 되새겨 보았다. 책에 담긴 깊은 뜻까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군데군데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이 있더구 나. 이듬해 안동 하회 마을에 내려와 지내면서 "춘추(春 秋)"를 30여 차례 읽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문장의 흐 름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은 마치 시장의 장사꾼처럼 오직 빨리 성공하는 길만을 찾더구나. 옛 성현(聖賢)의 생각이 담긴 책들은 구석에 처박아 두고, 날마다남의 비위나 맞추는 하찮은 글을 찾아 읽더구나. 그리고 그 글을 흉내 내서 시험 감독관의 눈에만 들게 글을 지어 성공한 자들도 많더구나.

(다) 또한 경서(經書)는 깊은 내용과 오묘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 힘을 쏟아야 터득할 수 있다. 반면에 역사서는 경서를 읽으면서 틈틈이 훑어보아도 이해할수 있다. 이렇게 공부해야 경서와 역사서를 모두 익힐수 있단다. 아들들아, 잘 생각해 보아라.

**11.**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
- ② 글쓴이의 생각과 경험이 반영된 글이다.
- ③ 글쓴이와 읽는 이의 관계가 드러난 글이다.
- ④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글이다.
- ⑤ 인사말과 안부, 사연, 맺음말 등으로 구성된 글이다.
- **12.** 글쓴이가 제시한 독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u>두 개</u> 고르면? (3점)
  - ① 입신양명을 위해 여러 종류의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 ② 인격과 학문을 닦는 데 필요한 유교 경전을 읽어야 한다.
  - ③ 글을 깊이 이해하려면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 ④ 주로 사서를 읽고 통감과 같은 역사서는 부수적으로 읽어야 한다.
  - ⑤ 옛 성현의 생각이 담긴 책들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읽어야 한다.

☞뒷면에 계속

### [13~18. 서술형 6~8]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나)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라

①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 ⑤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 e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번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1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3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이 드러난다.
  - ② 말하는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 ③ 애상적, 민요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다.
  - ④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 14. (가)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 나타나 있는 것을 두 개 고르면? (3점)
  - ① 별이 내게 속삭였다.
  - ②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 ③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 ④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15. (가)에서 떠난 임에 대한 말하는 이의 주된 정서를 두 개 고르면? (2점)
  - 분노
- ② 원망
- ③ 그리움
- ④ 애절함
- ⑤ 두려움

#### 〈서술형 6〉

(가)의 '잊었노라'의 함축적 의미(내포된 의미)를 쓰시오. (5점)

- 〈조건〉 가. 표면적 의미를 쓰지 말 것.
  - 나. '~다' 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 쓸 것.
- **〈배점〉 가.** 표면적 의미를 쓰는 경우 : 오답 처리.
  - 나. 문장으로 쓰지 않은 경우 : 1점 감점.
  - 다. 맞춤법 틀린 경우 : 1점 감점.

### 〈서술형 7〉

(가)에서 말하는 이에게 '당신'은 어떤 존재인지 쓰시오. (5점)

- 〈조건〉 가. '먼 훗날' 을 넣어서 완성할 것.
  - 나. '~다' 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 쓸 것.
- **〈배점〉 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각 1점 감점.
  - 나. 맞춤법, 문맥 오류 시 : 각 1점 감점.
- **16.**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서정적, 회화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었다.
  - ③ 자연 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표현했다.
  - ④ 눈과 나무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그리고 있다.
  - ⑤ 주제는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아름다운 사랑과 이별'이다.

#### 〈서술형 8〉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당한 의미를 지닌 표현 방식'이 나타나 있는 시행을 (나)에서 정확하게 찾아 그대로 쓰시오. (4점)

⟨조건⟩ 시행 전체를 정확하게 그대로 쓸 것.

〈배점〉가.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점 감점.

나. 맞춤법 틀린 경우 : 1점 감점.

- **17.** (나)의 밑줄 친 ①에 쓰인 심상과 같은 것은? (2점)
  - ① 향긋한 풀꽃 냄새
  - ② 말갛게 씻은 얼굴
  - ③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 ④ 풀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 ⑤ 뜰 아래 반짝이는 금모래빛
- 18. (나)의 ⓐ~ⓒ에서 눈이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한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면? (3점)

  - ① a 2 b 3 c 4 d 5 e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 , , , ,	출제자	강아연, 이승진, 송현호		
	2017학년도 9월 20일 1교시	반 반	<u>호</u> :	이름:	

[19~21, **서술형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還穀)을 꾸어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 섬에 이르렀다.

강원도 감사가 정선 고을을 돌아보다가 환곡 장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하였다.

"어떤 놈의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축냈단 말이냐?"

감사는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가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쯧쯧,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나)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 보자."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부자는 즉 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군수는 양반이 천 섬이나 되는 환곡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 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 양반이 벙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小人), 소인.' 하며 자신을 낮 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 지도 못하였다. 군수가 깜짝 놀라 양반을 붙들고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시오?"

양반은 더욱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아뢰었다.

(다)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잔을 켜고서, 눈은 가만히 코끝을 내려 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얼음위에 박 밀듯이 "동래박의(東萊博義)"를 줄줄 외워야 한다.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말아야 한다. 어금니를 딱딱 마주치고 뒤통수를 톡톡 두드리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이 삼켜야 한다. 소맷자락으로 털모자를 닦아 먼지를 털어 내어, 모자에물결무늬가 뚜렷하게 해야 한다.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말고, 입 냄새가 나지 않게 이를 잘 닦아야 한다.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부르며, 신발을 땅에 끌듯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겨야 한다. "고문진보(古文眞寶)", "당시품휘(唐詩品彙)"를 깨알같이 베껴 쓰되, 한 줄에 백 자씩 써야 하다.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물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찧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 을 쭈욱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에는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아내를 때리지 말고,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하지 말고, 죽으라고 종놈을 야단치 지 말아야 한다. 소와 말을 꾸짖되 그것을 판 주인까지 싸 잡아 욕하지 말고, 아파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 지낼 때 중을 부르지 말고, 추워도 화로에 곁불을 쬐지 말고, 말 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어기면, 이 증서를 토대로 관청에서 양반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다. 정선 군수가 서명하고,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이 증인으로서 서명함. 이에 관청의 하인(下人)이 탁탁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마치 북을 치는 것 같고, 찍어 놓은 모양은 하늘에 별이 펼쳐진 것 같았다.

호장(戶長)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참이나 멍하니 있다가 말하였다.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원하옵 건대 제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뒷면에 계속

(라) 문과의 홍패(紅牌)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 자루이다. 서른에야 진사가 되어 첫 벼슬을 얻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음관(蔭官)이 되어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다.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 주므로 귀밑이 희어지고, 설렁줄만 당기면 종들이 '예이.' 하므로 뱃살이 처진다. 방에서는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뜰에서는 남아도는 곡식으로 학(鶴)을 기른다.

벼슬을 아니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 멋대로 할 수 있다.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 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먼저 자기 논의 김 을 맨들,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네놈들 코에 잿 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휘휘 돌리고, 귀밑 수 염을 다 뿜아도 누가 감히 나를 워망하겠느냐?

(마)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 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 버렸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 았다.

- **19.** 이 글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u>두 개</u> 고르면? (3점)
  - ① 부자는 첫 번째 증서를 받고 무척 만족하고 기뻐했다.
  - ② 부자는 양반이 갖고 있는 재산이 탐나서 양반이 되려고 했다.
  - ③ 군수는 양반의 신분을 돈으로 획득하려는 부자를 엄하게 꾸짖고 있다.
  - ④ 양반 신분을 팔고 난 후 양반은 평민의 차림새를 하고 군수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 ⑤ 두 번째 양반 증서에서는 다른 계층에 횡포를 부리는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20. 다음은 위 글에 사용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①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2점)

개인 또는 사회의 악덕, 모순, 어리석음 등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 방식을 ( ① )라고 한다.

- ① 풍자
- ② 관점
- ③ 열거

- ④ 대조
- ⑤ 비교

- 21.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현실적 생활 능력을 중시하고, 양반을 비판하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은? (2점)
  - ① 부자
- ② 군수
- ③ 농사꾼
- ④ 관청의 하인
- ⑤ 양반의 아내

### 〈서술형 9〉

글(다)의 첫 번째 양반 증서에서 알 수 있는 양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 문장으로 쓰시오.(6점)

⟨조건⟩ 가. '~다'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 쓸 것.

나. 반드시 '~(을)를 중시하는'을 넣어서 완성할 것.

**〈배점〉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각 1점 감점.

나. 맞춤법, 문맥 오류 시 : 각 1점 감점.

-----<del>〈끝〉-----</del>

※ 선택형 21문항, 서술형 9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와 서술형 답안 작성을 꼭 확인하세요.

중간고사 지필평가(점수) (문항 당 배점 : 각 문항에 표기)		합 계 (점수)
선택형(21문항)	서술형(9문항)	(名十)
55	45	100

## 〈객관식 정답〉

하 년	정답	하 년 만 五	정답
1	3	12	1,3
2	1,4	13	2
3	2	14	2,4
4	1	15	3,4
5	5	16	5
6	2,4	17	3
7	1	18	3,5
8	2,5	19	4,5
9	4,5	20	1
10	3	21	5
11	4		

# <서술형 정답>

문항 번호	정답	
서1	하나의 글자는 한 가지 소리값을 지니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서2	'·'는 하늘을 의미하고, '一'는 땅을 의미하고, 'ㅣ'는 사람을 의미한다.	
서3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서4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서5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고, 전국 각지에 한글 강습소를 열었다.	
서6	결코 잊을 수 없다.	
서7	먼 훗날에도 잊을 수 없는 존재이다.	
서8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서9	형식(겉치레,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이 드러난다.	